

기본신앙교육자료 《 회 개 》

「한편의 시」 “회개”	7
1. 회개의 의미, 회개란 무엇인가?	8
1) 회개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8
2) 죄는 암과 같고, 회개는 수술과 같다	9
3) 회개는 참 좋은 것이다	9
4) 회개는 회복이다	9
5) 회개는 다시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10
2. 회개해야 하는 이유	11
1)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모두 회개 해야 한다	11
2)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있다. 죄는 회개로 해결된다	11
3) 신부는 깨끗해야 한다	12
4) 회개해야 사탄이 떠나간다	12
5) 회개 안 하면 짓값을 계속 받기 때문이다	13
6) 회개치 않으면 해를 받고 심판받는다	14
7)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14
8) 천국 가려면 죄를 깨끗이 회개해야 한다	16
9) 구원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여라	17

3. 회개의 좋은 점, 회개가 좋은 이유	18
1) 회개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18
2) 회개하면 자유함을 얻는다	18
3) 죄를 회개하면 악인도 의인된다	19
4) 회개하면 축복을 받는다	19
5) 회개하면 깨끗해진다	19
6) 회개하고 깨끗이 하면 하나님 뜻대로 평화롭게 살게 된다	20
7) 용서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으신다	20
8) 회개의 좋은 점	20
4.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2
1) 기도로 모순과 죄를 깨끗이 회개해야 된다	22
2) 회개 하고 기도해라	22
3)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회개가 된다	22
4) 각종 조건을 세우며 회개해야 한다	23
5) 진실로 회개해야 된다	23
6)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한다	23
7) 회개 할 것을 확실히 알고 고해야 한다	23
8) ‘아멘’하고 회개도 하고 가야 된다	24
9) 깨끗하게 해야 한다	24
10) 자기 죄뿐 아니라 형제, 가정, 민족, 세계, 섭리사의 죄를 회개하기다	24
11) 땅으로도 하늘로도 회개해야 한다	25
12) 회개는 말로도 하지만 행실로도 해야 100% 용서 받는다	26

13) 감사와 사랑으로 회개하라	26
5. 언제 회개해야 하는가	27
1) 회개는 바로 즉시 해야 한다	27
2) 회개는 빨리빨리 미리미리 해야 된다	27
3) 매일 매시간 수시로 해야 한다	27
4) 새해를 맞기 전 연말에 꼭!	29
5) 지금은 자기를 온전하게 깨끗이 하는 때이다	29
5. ‘죄’에 대해서	30
1) 죄에 대해 알아야 회개 할 수 있다	30
2) 죄는 수백, 수천 가지 많은 것이 있다	30
3)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는 죄	33
4) 우상 숭배하고 섬기는 죄	33
5) 복음을 불신하고 악평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죄	34
6) 사탄의 몸이 되어 행한 죄	35
7) 성적 사랑(이성, 동성)에 대한 죄	36
8) 형제에 대한 죄	37
9) 민족이 잘못된 죄	38
10) 본정신을 잃고 행하게 하는 것들(술, 담배, 환각제, 마약 등)	38
11) 무지의 죄	40
12) 시대 마다 죄가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한다	41
13) 죄의 형벌	41

6. ‘회개’와 심판	43
1)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신다	43
2) 심판은 하나님의 청소다	43
3)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때가 되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44
4)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정한 심판도 돌이키신다	44
7. ‘회개’와 용서	46
1)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46
2) 용서의 종류	47
3)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47
4)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48
8. ‘회개’조건과 탕감	49
1) 죄의 대가(代價)와 회개 조건, 근신	49
2) 조건을 세우고 회개하라	49
3) 행위로 용서를 받아야 끝난다	50
4) ‘탕감 기간’은 치료 기간과 같다	50
5) 직급자의 회개와 복직	50
6) 가중된 조건	51
9. ‘옛것을 장사지내라’ ‘청산’ ‘깨끗해야 한다’	53
1) 옛것을 장사지내라	53
2) 청산하여라	53

3) 깨끗해야 한다	54
10. ‘회개’와 월명동	57
1)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회개하고 나아가라	57
2) 처음 개발할 때 150년 썩은 흙과 쓰레기를 다 청소하여 거룩한 곳이 되었다	57
3) 야심작 백보좌	57
4) 야심작돌	59
5) 분재 작품솔과 뿌리솔	59
6) 뿌리솔	59
7) 성령폭포와 작품왕 소나무	60
8) 낙타바위	60
11. ‘회개’사연과 실천	62
1) 장마철 교회에서 뜨겁게 회개기도	62
2) 축구 사형선고 회개	62
3) 482년 만에 기독교와 천주교의 하나됨	63
4) 섭리사, 세상,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회개의 조건을 세움	63
12. ‘회개’와 성경 인물	65
1) 회개하지 않은 자는 모두 심판하셨다	65
2) 아담 하와, 노아,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성	65
3) 노아 홍수심판	66

4)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67
5) 이세벨	67
6) 사울 왕	68
7) 요나 선지자와 니느웨 성의 회개	68
8) 에스더와 모르드개	69
9) 예수님의 기도는 70% 감사의 기도, 10% 달라는 기도, 20% 회개하라	70
10) 예수님과 요나의 표적	70
11) 예수님과 에스겔	71
12) 베드로	71
13) 사도 바울	72
 13. '회개'와 성경	 73

「한편의 시」 “회개”

- 회개 -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심판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회개 날은 하루하루 멀어진다
속히 회개 아니하면
회개기회 지나가서
회개를 해도 심판 날을
피할 수가 없는 계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의를 행해 살아야만
죄로 인한
그 무서운 심판들을 면케 된다

죄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나
의인들은
모든 죄인의 죄를 회개한다
(모든 사람의 죄를 회개한다)

작고 크고 회개치 아니하면
죄인 취급 받는도다
사탄, 마귀, 악신까지
조건 붙여 괴롭힌다

인생들아!
선악 간을 분별하라
그리 못하고 산다면
죄만 짓고 살다가
심판들만 받는 계다

1. 회개의 의미, 회개란 무엇인가?

1) 회개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회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깨끗한 새집〉을 짓고 사는 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3. 〈기도로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컵에 더러운 물을 담아서 먹는 자’와 같다.

24. 〈회개하는 자〉는

‘컵에 있는 더러운 물을 비우고, 깨끗한 물을 담아서 마시는 자’와 같다.

1.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기다. 이는 ‘신앙의 필수적인 일’이다.

2. 일을 하면 손과 몸이 더러워지듯이 신앙의 일을 하면 그러하다.

일 하고 신앙적으로 씻고 닦고 더 깨끗게 하기다.

◆ 가령 〈깨끗한 물〉이 있는데 〈깨끗한 물〉이 ‘오염된 물’에 속하면,
그 물은 ‘오염된 물’이 됩니다.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오염되지 않은 물〉에 넣어야 됩니다.

◆ 〈사람〉은 모두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죄는 생활 쓰레기와 같고,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아서

누구나 청소하여 깨끗이 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디를 가도 먼저 앉을 자리를 깨끗이 하고 앉고 섭니다.

더러우면 앉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더러운 곳에는 세균이 있고 각종 병균이 있습니다.

음식도 썩거나 더러운 것을 먹으면 병이 듭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더러우면 병이 오고, 사람들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듯이, 회개로 죄를 청소하여 절대 깨끗이 해야 함

니다.

- 5. 죄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고로 회개하여 없애야 된다.
- 7. 죄는 배설물과 같아서 때가 되면 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처음에 절대 필요해서 사 와서 먹던 음식도 영양가를 흡수하고 나면 배설하여 버려야 된다.
- 8. 죄는 생활 쓰레기와 같다. 버릴 때는 회개하여 버려야 된다.

2) 죄는 암과 같고, 회개는 수술과 같다

<암>도 전이되어 번지기 전에 수술해서 고쳐야지, 번지고 나면 생명을 뺏긴다. <신앙의 죄>도, <생각의 병>도 번지면 고치기 힘들고, 고통을 받고, 신앙을 뺏기기도 한다.

28. <죄>는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한다. <회개>하면 병을 수술하여 치료하듯 죄가 없어지는데, <병>을 알고도 숨기고 수술을 안 하니 그 병으로 인해 한계를 맞게 된 것이다.

29. <병>이 있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병이 악화되듯,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만히 놓아두면, 죄가 번져서 생명을 빼앗아 간다. <의사>가 병을 진찰하고 지적하니, 부끄러워서 도망간다. 그러니 그 병이 악화되어 죽게 된다.

30. <죄>는 ‘병’과 같다. <병>은 ‘치료’해야 되듯,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3) 회개는 참 좋은 것이다

<회개>란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잘라낼 것이 있으면 잘라내는 것입니다.
<회개>는 ‘참 좋은 것’입니다.

4) 회개는 회복이다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서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며 구원하십니다.

2. 회개는 돌이키는 일이다.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가니, 죄를 회개하여 없애면 생명권으로 돌아오게 된다.

3.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망으로 갔다는 말이다.

다시 회개하여 생명권으로 나와야 육도 영도 살아난다.

5) 회개는 다시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1. 하나님과 성령님의 행하심을 보면, 마치 ‘성령길’을 내주듯 깨끗이 장사지내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의 행함을 보면, 옛것을 죽이기만 하고 아직 장사지내지 않은 자들이 있다. 몸에서 배설물을 내보낸 것은 옛것을 죽게 한 것과 같고, 변기의 물을 내려서 버리는 것은 죽은 옛것을 장사지낸 것과 같다.

2.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과 말과 행실들을 죽게 하려면, 자기의 불의한 행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할 때 장사지낸 것이 된다.

◇ 죄인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고 의인은 자기 의로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죄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회개’는 자기가 행하던 불법한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겔 18:26-27>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2. 회개해야 하는 이유

1)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모두 회개 해야 한다

◇ 절대자 삼위일체만이 ‘인생들’ 을 제대로 알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의인’ 과 ‘죄인’ 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수천 가지 죄 앞에 ‘죄 없는 자’ 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나니, 모두 ‘회개’ 해야 됩니다.
<깨끗한 자>에게 ‘성령’ 이 오시고 역사하십니다.

2)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있다. 죄는 회개로 해결된다

한 주 두 주 회개하지 않고 사는 신앙은
마치 몸을 더럽혀 놓고 한 주 두 주 목욕하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몸을 안 씻으면 때가 끼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욕을 가진 자는 때가 있듯이, 욕을 가진 자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혼자 살아도 쓰레기는 매일 나옵니다.
이와 같이 생활 쓰레기가 매일 나오듯 생활의 죄도 매일 생깁니다.

19.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생각>에서 의식이 되어 행하는 데 제재를 받고,
사탄이 막아서 생각을 흐리고 피곤하게 하고 각종 지장을 준다.
고로 회개하여 <생각>이 제재받는 주관권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생각>이 ‘자기 혼과 영의 힘’ 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감동과 영적인 힘’ 을 받아서 행하게 된다.

20. <마음과 생각이 청결한 자>가 되도록
‘죄 문제’ 를 해결해야 <생각>이 ‘제 기능’ 을 하게 된다.

<죄의 길>을 벗어나는 방법은 ‘회개’ 다.

3) 신부는 깨끗해야 한다

4. 하나님은 깨끗한 존재자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인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5. 시대 신부의 생명은 깨끗함이다.
6. 청결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깨끗해야 하는지 아느냐. 영원히 찾아도 <더러운 것>이 ‘모래 한 알 만큼’도 없어야 된다. 더러우면, 그에게는 안 간다. 깨끗해야 간다.

모두 <회개>다. <온전한 생활>이다.

매일 씻듯, ‘매일 회개’다. ‘매일 의의 삶’이다.”

삼위께 가는 데에 ‘회개’가 그리도 중하다.

“깨끗하게 해 주니 회개해라.” 해도 안 하면,
삼위를 거스르니 삼위는 그를 가까이하지 않으신다.

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행하여 근본을 회개하지 않으면, 꽃나무와 각종 나무를 베어 없애듯 하리라.” 하셨다.
4. 하나님의 깨끗한 육신이 되어 살아야 생명권의 권세를 뺏기지 않고 살게 된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권에서 떨어진다.
5.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사망의 사람으로 끝나게 된다.
오직 진실로 회개하는 자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된다.

4) 회개해야 사탄이 떠나간다

잘못하면 무지한 말로 열심히 한 형제를 미워하여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은 자가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사탄의 몸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죄를 숨기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회개하여 깨끗이 해야
사탄이 주관하지 못합니다.

몸을 깨끗이 씻어 없애듯, 죄를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26. <기도>하여 ‘자기 죄를 회개’ 하고 ‘용서’ 받아야 된다.

27. <죄를 회개>해야 ‘사탄’ 이 떠나가고 멀해진다.

5) 회개 안 하면 짓값을 계속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 을 받는다.”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

‘그 짓값’ 을 받게 된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 회개하여 없애지 않고, 그 대가를 받으면서 없애려면 수백 배를 받는다. 회개는 마치 더러운 배설물을 깨끗이 없애고 닦는 것과 같아 즉시 해결된다.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썩는 냄새를 맡아야 된다.

이와 같이 회개 안 하면 짓값을 계속 받는다.

짓값이 아니라고 해도 의인이 죄인 위해 그 대가를 세워도 수백 배를 받아야 한다.

회개해야 죄의 값을 받지 않게 됩니다. 회개해야 사망에서 나와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자는 그냥 놓아두면, 영이 영원히 사망에서 삽니다.

매일 기도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의 길을 버리고

오직 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뜻대로 살면서 가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사망에서 나오게 됩니다.

6) 회개치 않으면 해를 받고 심판받는다

죄가 있어서 해를 받지만,
근본은 ‘회개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지은 만큼 자기가 양심에 가책과 꺼림을 못 느껴도,
하나님은 자기 몸에 더러움이 묻은 만큼 꺼려지는 것을 느끼시기에,
죄지은 자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못 견뎌 심판하신다.
심판해야만 하나님 몸의 더러움과 꺼려지는 것이 씻어져 없어지듯 하기 때문이다.

7)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1. 하나님과 성령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은 사망으로 간다.
그 육신 역시 사망권의 삶을 살게 된다.
2. 회개는 돌이키는 일이다.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가니, 죄를 회개하여 없애면 생명권으로 돌아오게 된다.
3.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망으로 갔다는 말이다.
다시 회개하여 생명권으로 나와야 육도 영도 살아난다.

46.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그 육의 행실을 따라 그 혼이 옥에 갇히고, 옥에까지 가서 살게 된다. ‘범죄한 자들은 죽으리라.’ 하였듯이 죄를 범한 혼도 그러하다.

47. 육신은 멀쩡히 돌아다녀도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은 자’는 바로 옥에 갇혀있다. 육신이 깨닫고 회개하면 값을 치르고 나오게 된다.

6. 지상에 사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흑암으로 간다.
지옥 직전까지 가도 모른다.

<지옥>이나 <흑암>으로 가는 길은 ‘일반 터널’ 같은 길이니, 많은 자들이 그냥 같이 길을 가는 줄 안다. 지옥에 들어가면 고통스러우니, 그제야 알고 소리

지른다.

그때는 소리 지르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가 왜 지옥에 왔는지 모르고 말버둥 친다.

7. 왜 지옥에 갔을까?

첫째,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죄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 ‘영’이 제대로 구원이 안 된 것이다.

둘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다.

<자기 행위로 인한 죄>가 지옥에 갈 만큼 됐기 때문이다.

지옥 가는 사람의 숫자가 천국 가는 사람보다 90%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아주 그 길이 좁고 험박하여 찾는 이가 적고 가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찾는 이도 많고 가는 이도 많다” 했습니다(마7:13-14).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영계에서 보니까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늘 깨닫고 또 보고 또 보고 ‘이 길을 찾자.’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대로 살아라. 때가 그렇게 되었으니.” 믿습니까? 귀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것 잘못 듣고서 재수한다, 이것도 크지만 가장 큰 것은 신앙의 세계에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못 빼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옥 간 사람은 정말 못 빼입니까? 나오게 하지 못합니까? 한번 용서해줄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용서는 안 해준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지요.” 한번 없냐고 아무도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뒤에서 빼주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섭게 하려고, 기회 없다고 하려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

“어째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안 줍니까? 이 세상에서 일곱 번에 일흔 번씩,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일곱 번씩 일흔 번씩 주라고 했는데 어째서 지옥은 한 번도 없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다 줬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다 줬다. 다 줬어. 여기는 이 세계, 저기는 저 세계야. 저기는 없는 세계고 여기는 있는 세계야. 이 세상에 살 때는 천국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한 세상이고 저 지옥 세상은 하나도 없는 세계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네 몸 봤어? 얼

굴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고 주저리주저리 달려 있는데 몸통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달려 있잖아. 거기만 달려 있어.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회개의 기회 투성이야. 그러나 지옥에는 한 번도 없어. 네 등쪽에 눈 하나 없고 코 하나 없듯이. 등쪽에, 배에 어디 머리털 하나라도 났냐? 머리에만 잔뜩 났지. 그와 같이 그러하다.”

8) 천국 가려면 죄를 깨끗이 회개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이 착하고 선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스스로 선하여도 그 선함만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세상에서는 그 행위대로 받고 살기는 해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하여 배우고 <심판>에 대하여 배우고 <회개>도 해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매일 씻어도 또 때가 있듯이 하나님이 볼 때 죄가 있으니 말씀을 듣고 자기가 범한 죄, 연대죄, 유전죄, 원죄 다 깨끗이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씻고 육신을 깨끗이 해야 때가 없어지듯이 늘 회개도 하고 의를 행하여서 죄를 없애야 됩니다.

14. 천국과 황금 천국은 악이 없다. 악과 선은 완전히 쪼개서 악은 절대 천국에도 황금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악이 호리라도 있으면 싸우기 때문이다. 악한 마음을 완전하게 회개하고 영을 온전하게 선한 영으로 만들어야 천국에도 황금 천국에도 들어간다.

15. 절대 ‘사랑의 영체’로 만들어야 그 영도 휴거되어 삼위와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흠이나 점이 있는 것은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회개로 의롭게 만들어라.

육신 세계 것들도 온전하게 만들면 월명동 그 큰 것도 만들어지듯이, 자기 하나 자기가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는데 하면 된다.

◆ 금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빛나는 황금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에게서 더러움과 무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나는 사랑과 진리의 덩어리가 됩니다. 욕도, 혼도, 영도 깨끗게 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죄와 그릇된 것을 제거하고 회개로 깨끗한 마음과 행실을 만들기 바랍니다.

◇ 전능하신 삼위와 예수님은 깨끗하십니다.

고로 깨끗한 자와 통하시고, 깨끗한 자와 일체 되십니다. 더러우면 다 싫어하십니다.

더러우면 땅에서도 삼위와 일체가 안 되고 황금 천국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9) 구원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여라

◇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시고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받으려면, 저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여라.” 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하니, 먼저는 저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여라.” 하셨습니다.

◇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을 ‘하나의 생활’로 봤지,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있으니,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3. 회개의 좋은 점, 회개가 좋은 이유

1) 회개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혼이 사망권에 처하게 되고, 회개하면 생명으로 나옵니다.

꿈에 자기 혼이나 영을 봤는데 깨끗한 옷을 입지 못한 자는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지은 시간의 수백, 수천, 수만 배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영으로 셀 수 없이 오랫동안 사망에 처해 고통’을 받게 된다.

회개하면 사망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영은 회개하지 않아서 수조 배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또 <죄를 안 지으려고 참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원수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깨달아라.

3.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망으로 갔다는 말이다.

다시 회개하여 생명권으로 나와야 육도 영도 살아난다.

4. 깨끗하게 회개하면 죄를 청산하게 되니, 그렇게도 좋다.

5. 죄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고로 회개하여 없애야 된다.

2) 회개하면 자유함을 얻는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를 않으면

그 영이 죄에 물이 들어 점점 어둡게 되어 버리나니, 영뿐 아니라 육도 그러하니라.

회개하는 자는 죄에서 구속(救贖)되어 자유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은혜의 꽃이 피고 진리와 사랑의 열매가 저마다 열리게 된다.

3) 죄를 회개하면 악인도 의인된다

4. 죄가 있으면 ‘죄인’ 이고, 죄를 회개하면 ‘의인’ 이다.
5.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악인도 회개하면 의인이 된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주기에,
악인이 존재 기간은 회개 기간이기도 하다.

4) 회개하면 축복을 받는다

<죄를 회개>하면 바로 마음에 기쁨과 은혜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역사합니다.
물질 축복도 받고, 그 원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반면 죄가 그렇게도 나쁩니다.

회개하여 소각해야,
하나님은 ‘심판’ 을 돌리시고 ‘축복’ 으로 실행하신다.

5) 회개하면 깨끗해진다

<죄>는 ‘몸의 때’ 와 같습니다. 고로 그냥 보면 ‘죄’ 인지 모릅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 내면 ‘죄’ 가 나옵니다.
<회개>는 ‘참 좋은 것’ 입니다.
더러운 것이 있는데 버리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굴 피부의 결점을 없애고 깨끗해지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더러운 쓰레기, 냄새 나는 음식물을 버리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양치질을 하면 얼마나 개운합니까?
때마다 씻으면 얼마나 개운하고 좋습니까?
자기 몸에 쌓인 때를 밀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와 같이 <회개>가 이리도 좋습니다.

6) 회개하고 깨끗이 하면 하나님 뜻대로 평화롭게 살게 된다

3. 지구 세상의 환경이 오염되면 기후 변화, 온난화 현상, 홍수, 가뭄 등 각종 재해가 일어나 해를 받는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개인, 가정, 민족의 죄로 오염되면 하나님 뜻에 모두 변화가 일어나 결국 죄로 인하여 행한 대로 양심 심판, 홍수 심판 등 각종 심판이 일어난다.
4. 개인 모두 각자 죄를 회개하고, 민족도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롭게 살게 된다.

7) 용서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으신다

<삼위>는 ‘몇 번이나 용서했는지’ 그 수를 세지 않으신다.
회개하면, 회개하는 대로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용서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은 것이 몇 번째냐?” 하지 않으신다.
다만, 죄를 지었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고 재촉하신다.

8) 회개의 좋은 점

1. 회개하면, 영원한 영생 길, 좁은 길로 가는 자입니다.
죄의 짐이 없으니 너무나도 편하고 기쁩니다.
2. 회개하면, 사탄과 악들이 힐문하지 않습니다.
3. 회개하면,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4. 회개하면, 복을 주고 원하는 것을 다 주십니다.

5. 회개하면, 농부가 잡초를 뽑고 퇴비하듯 자기 마음속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자기와 가정, 민족, 세계의 잡초를 모두 뽑아내야 합니다.

6. 회개하면, 심판을 안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회개 안 한 곳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육체가 되어 산 자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한 사람들, 다윗을 괴롭힌 사울 왕,

에스더 때 음모하고 억울하게 한 하만, 안 하겠다 해 놓고 변장하고 행한 요시야 왕,

베드로에게 거짓말하고 땅값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

회개하지 않은 자는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7. 회개하면, 죄에 묶인 육과 영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8. 회개하면, 병이 낫습니다. 죄로 인해 병이 오기도 합니다.

◇ <죄>가 있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천국’에 가지 못하니,

절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지옥 고통’을 받게 됩니다.

◇ 죄를 회개하면, ‘회개함으로 인한 대가’를 즉시 받게 됩니다.

◇ 죄를 회개하면, 육이 ‘죄에서 해방’되고 ‘빛에 속한 자’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죄의 담’이 없어져서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 혼도 사망에서 나와 ‘빛에 속한 삶’을 살게 되고, 영도 ‘더욱 빛에 속한

자’가 됩니다. 또한 더 이상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고 <삼위>와 <예수님>이 다스리게 됩니다.

4.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기도로 모순과 죄를 깨끗이 회개해야 된다

자기 몸을 수시로 깨끗하게 씻듯이,
기도로 자기 모순과 죄를 깨끗이 회개해야 된다.

2) 회개 하고 기도해라

먼저 <사탄과 마귀>를 쫓아내고 <회개>하고 기도해라.
이는 청소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사탄과 마귀>가 옆에 있고, <죄로 인해 썩는 악취>가 나면 하나님이 멀리하시
고,
자기가 가까이 가려 해도 못 만난다. <죄>를 그냥 두고 기도하느냐.
<죄 보따리>는 ‘회개’ 함으로 마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듯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라. 쓰레기 보따리 안고 하나님께 가면 되겠느냐.

회개의 기도는 청결한 마음이 될 때까지입니다.

“깨끗한 마음과 행실로 살기 위해 회개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죄와 하나님 마음을 거스른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며
삼위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성을 사랑한 죄를 회개하고,
각종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듯 깨끗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와 가정, 섭리사와 민족, 세계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잘못 대한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3)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회개가 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 믿으면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만들고, 하나님 믿게 만들면

일단 회개를 하기에 그때부터 반듯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4) 각종 조건을 세우며 회개해야 한다

공적을 세우고 죄를 고해야 용서하는 것이 다르다.
전도 조건, 회개 조건 등 각종 조건을 세우며 회개하기다.

5) 진실로 회개해야 된다

진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회심하고 회개하는 것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상달되어 용서를 받습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상하게 해 놓았으니,
그 상한 마음이 풀리도록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6)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한다

저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모두 장사지내야 됩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장사지내야 됩니다. 남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행했는지, 못 행했는지는 자기만 압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본인 회개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만 회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 <죄>는 ‘담’ 과 같아서, 갈 길을 막고, 삼위의 뜻을 막습니다.
고로 <자기 죄>는 자기가 즉시 회개해서 없애 버려야 합니다.
- ◆ <죄>는 ‘자기’ 가 행하지 않아야 ‘죄를 다스리는 것’ 입니다.

7) 회개 할 것을 확실히 알고 고해야 한다

5. <회개>해야, ‘자기가 회개할 것’ 이 생각나고 깨달아진다.
6. <회개해야 됨>을 알고 확실히 고해야, ‘자기 죄’ 도 확실히 생각한다.

8) ‘아멘’ 하고 회개도 하고 가야 된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신혼골수를 꿰뚫어 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냥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말들을 가슴에 쌓아 놓지 않고 기어이 다 하고 풀고 가듯,
 전능자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하고 싶은 말은 꼭 다 하고 가십니다.

고로 “아멘.” 하고, 회개도 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함없고, 예수님과 성령님 사랑 역시 그러합니다.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9) 깨끗하게 해야 한다

1. 세상에서 무엇보다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2. 더러운 것은 씻고 닦고 버리지 않으면 평생 그냥 있다.
- 깨끗하게 해야 귀하게 쓰인다.

1.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니, 깨끗하게 하여라.
2.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생명의 전인 자신의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3.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느니라.
4.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와 안 믿고 사는 자의 차이는 깨끗하고 청결함의 차이이다.

10) 자기 죄뿐 아니라 형제, 가정, 민족, 세계, 섭리사의 죄를 회개하기다

회개할 때는 자기의 죄뿐 아니라 가정, 민족, 세계의 죄까지 회개해 줘야 합니

다.

형제가 죄지은 것을 대신 회개해 주면 그 형제의 영도, 육도 죄의 사망권에서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죄도 덮어 줄 뿐 아니라, 형제를 살린 그 의가 큼니다.

모두 매일 자기 죄, 섭리사의 죄, 민족의 죄, 세계의 죄를 두고 회개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매일 씻듯이, 매일 회개는 절대로 해야 됩니다.

- <자기 죄>도 회개하고, <형제들 죄>도 회개해 줘야 됩니다.
<구원시키는 정신과 사고>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 <하늘 신부들>이라면, 지구 세상 누구에게도
‘욕’ 하거나, ‘불만 불평’ 하거나, ‘나쁜 표현’ 을 써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위하고 섬겨주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나님도 성령도 말씀하셨습니다.
-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형제 탓>하지 말고,
<자기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1) 땅으로도 하늘로도 회개해야 한다

<마 18: 15~20>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 ▶ 땅에서 매인 것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땅의 것은 땅의 사람에게 회개하고 풀어야 합니다.

땅으로도 하늘로도 회개해야 온전한 회개가 이뤄집니다.

죄를 지어 회개할 때는 죄인이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는 의인이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지 말고,
보이는 ‘사람’에게도 해야 완전히 회개가 되어 의인이 됩니다.

12) 회개는 말로도 하지만 행실로도 해야 100% 용서 받는다

<회개>는 ‘말’로도 하지만, ‘행실’로도 해야 100% 용서받는다.

매일 자기 죄와 불의, 모순, 할 일을 안 한 것을 두고 ‘회개하기’ 다.
<회개>했으면, 생활에서 ‘완전하게 행하기’ 다.

13) 감사와 사랑으로 회개하라

감사와 사랑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시대를 맞은 자들이 해야 됩니다.

2.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해 주실 것 다 해 주셨다.

이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지은 자다.

3. 하나님이 사람들로써 해 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감사하며 기
뻐하지 않는 자는 회개 기도를 하여도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전에 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여라. 받았으니 고마워해야 한다.

지난날 하나님이 준 것을 잊고 감사하지 않고, 받았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기도해도 잘 안 주신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회개하고, 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놓아야 주신다.

자기 사정은 남이 모르니 자기가 책임지고 말씀 듣고 깨닫고 실행해야 된다.

5. 언제 회개해야 하는가

1) 회개는 바로 즉시 해야 한다

<죄>도 짓고서 양심에 가책될 때 즉시 회개해야지,
지난 후에는 양심에 가책도 안 되고, 감각이 무더져서 그냥 지나가게 된다.
고로 죄가 그대로 있는 자가 많다. 그러면 후에 ‘천국 문’ 앞에서 더 못 간다.

<죄>를 짓고서 ‘회개’가 밀리면,
그것이 ‘사고의 시한폭탄, 피해의 시한폭탄’이 돼서 터지게 된다.

2) 회개는 빨리빨리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날, 심판하는 날 회개하면 늦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판하는 날, 심판을 딱 떨어뜨렸는데 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포탄이 탁 떨어져서 터졌는데 그때 살려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늦었지.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회개는 빨리빨리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먼 길을 갈 사람이 길을 서둘러 빨리 가야 돼요. 재촉해야 됩니다.

3) 매일 매시간 수시로 해야 한다

죄로 죽지 않게, 회개하여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항상 밥을 먹듯이, 때를 깨끗이 밀듯이, 청소하듯이
자기 죄와 가정, 민족의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육도 혼도 영도 빛이 나고, 혼과 영의 옷도 빛이 납니다.
사람의 육신도 보면, 매일 이를 닦고 얼굴을 닦고 몸을 닦고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영양소를 먹지 않으면 건강도 나빠지고, 배고픔도 해결이 안 됩니다.

먹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같이 회개도 매일 시간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사탄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마치 영양제,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C를 안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이든지, 약이든지 먹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안 하면 안 되듯이, 회개도 매일 밥 먹고 그릇 씻듯이 해야 됩니다.

회개가 얼마나 수시로 필요한지 마치 목욕하는 만큼이나 수시로 필요합니다.

한 주 두 주 회개하지 않고 사는 신앙은

마치 몸을 더럽혀 놓고 한 주 두 주 목욕하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몸을 안 씻으면 때가 끼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을 가진 자는 때가 있듯이, 육을 가진 자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혼자 살아도 쓰레기는 매일 나옵니다.

이와 같이 생활 쓰레기가 매일 나오듯 생활의 죄도 매일 생깁니다.

1. 아무리 좋고 깨끗한 옷이라도 점점 더러워지지 않는 옷이 어디 있느냐.

더러워질 때마다 빨래하여 깨끗하게 하고, 아예 새 옷으로 바뀌 입기도 해야 된다.

신앙도 이와 같다.

2.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닦아도 더러워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매일 씻고 닦아야 더러워지지 않는다. 신앙도 이와 같다.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매일 회개하는 일’을 안 합니다.

매일 먹고, 매일 이를 닦고, 매일 몸을 씻고, 매일 운동하고,

매일 자기 몸을 병들지 않도록

건강을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한지 깨달아야 매일 행합니다.

4) 새해를 맞기 전 연말에 꼭!

◆ 해마다 ‘새해를 맞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이 있습니다.

‘연말에 꼭! 해야 될 일’ 이 있습니다.

바로 ‘소각할 것을 소각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입니다. 곧 ‘회개’ 입니다.

◆ <더러운 옷>을 빨지 않고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새해를 맞으면 꺼림칙합니다.

<몸의 더러운 때>를 깨끗이 씻지 않고 새해를 맞으면 껌뻑합니다.

<할 일>을 다 못 하고, 새해를 맞으면 꺼림칙합니다.

이와 같이 <올해 지은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소각하지 않고 새해를 맞으면, 마음에 꺼리고 껌뻑해서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 하시고

<회개한 자들>은 ‘용서’ 하시며, 각자 행위대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다 행하십니다.

각 개인도 연말에는 정산하고 청소하고 해를 넘기듯,

하나님도 꼭 정산하고 청산하고 해를 넘기십니다.

5) 지금은 자기를 온전하게 깨끗이 하는 때이다

• 지금은 ‘자기를 온전하게 깨끗이 하는 때’ 입니다.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저마다 ‘방주를 만드는 것’ 과 같습니다.

시대의 의인들이 자기를 의롭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각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갚아 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만 재촉하지 말고,

자기가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과 성령님께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5. ‘죄’ 에 대해서

1) 죄에 대해 알아야 회개 할 수 있다

‘죄’ 에 대해 알아야 그 좋은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는 죄가 없다.” 하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안 한 것이 ‘죄’ 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죄’ 입니다.

21. 세상에서도 ‘불의한 자들’ 과 그 세계에서 어울리다 보면, “이 세계도 그리 나쁘지 않네.” 하고 그들을 따라가기도 한다. 그러나 ‘악한 것, 불의한 것, 세상의 것들’ 을 한 가지만 행하여도 싫어하고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두렵게 보는 자들은 사탄과 악인들이 ‘불의한 세계’ 에 가자고 해도 질겁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를 않는다. 이는 ‘육의 세계’ 나 ‘영의 세계’ 나 동일한 현상이다.

22. 가령 술을 먹는 자는 술친구가 같이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 끌려간다. 자기가 원하니, 제 발로 간다. 그러나 아예 관심도 없고 안 먹는 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고 한마디 쏘아붙인다. 술이나 담배, 이성 등 각종 불의와 악한 행위는 아예 행하지 말아야 그 면으로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것이다.

23.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사전에 악한 자들과 함께 행했든지, 혹은 스스로 불법을 행하였기에 ‘불의한 세계’ 로 나간 것이다. <나가는 이유>는 죄를 죄로 안 여기고 하나의 ‘자유로운 생활’ 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끼리는 “이것은 절대 죄가 아니다. 생활이다.” 하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각종 불의를 행하며 산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법’ 도 버리고, ‘자기중심, 세상의 육적인 것’ 을 법으로 여기며 행하고 산다. 고로 다시 ‘선’ 을 알고 돌이키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천법>에 의해 ‘행위의 형벌 기간’ 에 들어갔으니, 벗어나려고 원해도 안 된다.

2) 죄는 수백, 수천 가지 많은 것이 있다

죄는 수백, 수천 가지로 엄청난 가짓수가 있습니다.
성령께 회개할 것이 생각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장부같이 기록돼 있으니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지 말고, 즉시 하던 행위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 선생님도 야심작으로 가서

〈야심작돌〉과 〈의자돌〉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무엇을 깨끗하게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셔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꺼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라낼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 어떤 것이 〈죄〉인지 모르면 죄를 짓고 ‘회개’를 못 합니다.

- 〈죄의 가짓수〉를 100개 이상 적어 봐야 ‘죄’에 대해 조금 알게 됩니다.

- 모르는 것도 죄이고,

-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이고,

-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죄이고,

- 의를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이 태어난 목적을 주셨는데도

-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이고,

- 그 뜻을 두고 창조자 하나님 앞에

- 그가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 〈하나님 보좌〉를 청소해 보니, 깨끗하게 할수록 끝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방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보좌를 청소하고 단장하는데 ‘100명 이상’이 일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막연하게만 생각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 두 개씩 깨끗하게 할수록, 끝없이 깨끗하게 하고 싶어집니다.

깨끗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해 보는 사람’만 압니다.

죄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큰 죄들이 있습니다.

불신하고 배신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 믿고, 그리고 형제사이 이간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졸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졸며 자빠지며 무릎을 스스로 당하는 일, 이게 다 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가지가지 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겪은 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해(害)했든지, 악평했든지, 모르고 오해하면서 해 퍼붓고 수군수군 했든지, “재 나쁘다. 좋다.” 했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많다고 말입니다. 우리들 입장만 보지 말고 범위 높은 큰 것을 보아야 됩니다.

전쟁, 야심적인 전쟁, 땅을 뺏는 전쟁, 그리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아서 선진국들이 잘 되는 것을 못 보아서 약자국들이 모여서 때려 치는 전쟁, 그리고 주권 행위의 전쟁, 물질주의 욕심내는 전쟁, 그리고 또 서로 혈통간의 싸움 전쟁, 민족의 전쟁, 민족의 죄, 민족이 죄짓는 것, 개인이 죄짓는 것, 그리고 단체가 죄짓는 것, 죄짓기 싫는데 데려다가 죄짓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양심이 꺼리면 죄, 그리고 의를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이 죄.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꼭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서 조금 타고 있습니다. 산 불 끄는 소방대가 오기 전에 가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국가 땅이 타든지 개인 땅이 타면, 산이 타면, 나무가 타면 손해 가잖아요. 이와 같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죄입니다. 본인이 꼭 그것을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모든 것을 죄를 이해하게끔 이런 입장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본인이 전도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게 죄. 본인이 그 사람을 관리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안 하면 그것도 죄.

모르고 안 했어도 죄. 알고도 안 했어도 죄. 이런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도 혼났으면 그것도 죄. 한 사람이 조는데 다른 사람도 혼났습니다. 그것은 연대죄로 받는 것입니다. 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죄짓게 하는 사람도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릇된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남을 띄며 거짓말하는 것도 죄이지만,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죄를 짓게 했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여자들

이 짧은치마 입고 다니고, 자꾸 이성으로 치우쳐 놀아서 남자들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3)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는 죄

죄의 가짓수는 수천 가지도 넘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함이 모두 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지 않음이 죄인 것이다.

제일 큰 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됐다(시 50:22).”

라고 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모두 ‘죄’가 된다.

11.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한 자>는 행하는 것마다 ‘죄’가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만사의 행함’이 다 ‘죄’가 된다.

12.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의’인데,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된다.

13.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다.

14.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치 않은 것>도 ‘죄’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모시고 섬기면, 그 행위를 ‘죄’로 보지 않으신다.

4) 우상 숭배하고 섬기는 죄

“하나님보다 주 예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죄다.” 하셨습니다. (마 10:37)

이성의 사랑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타락이며 우상화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정해 놓았어도 저마다 좋아하는 대로 행하면
자기는 그것을 선(善)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김’ 과 ‘하나님을 섬김’ 중

‘우상 섬기는 것은 죄요, 악이다. 불의다.’ 라고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이고, 의다.’ 라고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 섬기면 그 행하는 것을 선(善)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우상 섬기는 자는 그것을 선으로 알고 섬기고 절하고 숭배하며 삽니다.

우상으로 인도하고, 사망권으로 인도하는 자는 ‘스승’ 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는 ‘스승’ 이 아닙니다.

<우상과 이단의 가르침>은 육도 영도 ‘사망’ 으로 가게 합니다.

지금도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수십억 명씩 ‘사망’ 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천모 성령님과 성자>만이 ‘절대신’ 이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외에 믿고 섬기는 신들은 모두 ‘우상’ 이다.

<우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고로 삼위는 그 행위대로 형벌을 주신다.

5) 복음을 불신하고 악평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죄

<악평하고 불신하는 자들과 대화하지 않고,

그들의 글이나 말을 절대 듣거나 보지 않는 것>이 ‘지혜’ 다.

그러나 그리 하는 자는 ‘죄인’ 이요,

‘그들과 같은 악평자’ 가 되어 영도 육도 사망권에 처해 영원히 살게 된다.

1. <환난과 핍박>은 ‘악인들’ 과 ‘사탄들’ 이 일으킨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인들’ 을 심판하여 멸망시키시고,
 ‘사탄들’ 도 영원한 지옥에 넣고 가두신다.
2. <의인들을 괴롭힌 죄>가 최고로 크다.
 하나님은 ‘의인을 괴롭힌 자들’ 을 심판하여 지상에서 홀으신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택한 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려 하였으나,
 복음을 불신하고 도리어 무저갱의 짐승 같은 사탄과 마귀들의 주관을 받아 악평
 하고 음모하며 각종 악한 말과 거짓으로 그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악평하게 하
 고 같이 불신케 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괴롭게 한 자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거역한 자들이 되므로
 그 행한 대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6) 사탄의 몸이 되어 행한 죄

아담과 하와는 아들 2명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 4:1-2)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던라”
 그런데 들에서 형인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창 4:8)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왜 죽였겠습니까. 시기, 질투, 혈기를 못 참아서 사탄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
 다.
 지금도 미워하면 영적으로 불 때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살인죄로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회개해야 살아납니다. 회개로 용서받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숨기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회개하여 깨끗이 해야 사탄이 주관하지 못합니다.
몸을 깨끗이 씻어 없애듯, 죄를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무지한 말로 열심히 한 형제를 미워하여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은 자가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사탄의 몸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깨끗이 되어 각종 유혹을 이기고,
자기 영과 혼과 육이 사망에 갇히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보
야 된다.
태만하고, 게으르고, 안심하면,
사탄과 악에 속한 자들의 유혹과 말에 꺾여 그들과 같이 고통받게 된다.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 사망으로 가게 된다.

7) 성적 사랑(이성, 동성)에 대한 죄

이성이나 동성을 마음에 품거나 만지는 것이 ‘죄’입니다.
생명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상대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고 만지기까지 하면서
애인으로 삼듯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성 죄, 동성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죄는 ‘휴거에 있어서 치명적인
죄’입니다.

<성적 사랑>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성 사랑>으로는 ‘사랑 휴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성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했다면 이번에 다 뿌리 뽑아
야 됩니다.

모두 회개하여 일점일획도 남김없이,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릇된 육적 사랑>으로 인식하면 절대 안 되고,

이것을 뜻으로 생각하거나 옳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4. 전능자 하나님은 육도 보시고, 마음·정신·생각도 다 보신다.
5. 마음으로 했어도 의가 되고, 악이 된다.
6. 어떤 사람이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한 상대를 사랑했다 하자. 그러면 그 혼체도 그와 같이 한 것이 된다. 또한 생각은 육에 속해 있기에 행위로도 사랑한 것으로 본다.
7. 마음으로만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했어도 마음은 육에 속한 것이라서 그 썩은 마음이 죄가 되어 육체도 죄를 지은 것으로 본다.

이성 죄를 지은 자도 말로만 용서받겠다고 해서 죄가 끝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 용서를 받아야 끝난다.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안 해야 끝나고,
 반드시 죄의 탕감 조건과 형벌 조건을 세워야 끝난다.

8) 형제에 대한 죄

형제를 오해하여 온갖 말로 비방하며 말과 글로 친 죄,
 그 말들을 유포하며 거짓 증거한 죄, 유언비어를 만들어 전한 죄,
 그 말을 믿은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자는 <제6계명>에 따라 ‘살인죄’를 범한 자입니다.

<미워한 것>이 ‘살인’입니다.

교역자나 지도자들도 단상에서나 공식 석상에나 사석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비방하며 범한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일절 멈추고 회개해야 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눈의 들보 같은 죄’가 있는데도 ‘형제 눈의 티만한 죄’를 지적하면서 죄인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눈의 들보 같은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고 가라.

하나님이 저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자기가 심판자가 되지 말아라.

형제를 작게나 크게나 미워함도 죄다.
미워할 사건이 있어도 미워하면 죄다.
꿈에 보면 미워함이 어둠으로 보인다.

9) 민족이 잘못된 죄

과거 성경 역사를 보면,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이 보낸 자를 불신한 죄,
그리고 개인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각종 죄들’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

<민족이 잘못된 죄>도 자기 민족이니 자기가 기도해서 회개해야 된다.
자기가 사는 집의 더러운 것을 안 치우면 자기에게도 해를 주는 것과 같이
<가정의 죄>도 그러하니 모두 회개하여라.
회개하여 ‘하나님의 노’를 없애고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죄의 조건’이 없으니, 주실 것을 주신다.

6. 하나님은 개인, 가정, 민족, 세계들이 죄를 짓고 살면 쓰레기를 계속 방에 쌓듯이 쌓아두게 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죄의 쓰레기를 청산하고 행하신다.
7. 그러므로 개인 단위, 가정, 민족, 세계 단위에 해당하는 회개를 다 해야 한다.

10) 본정신을 잃고 행하게 하는 것들(술, 담배, 환각제, 마약 등)

술, 담배, 환각제, 마약 등 각종 것들을 만들어 사람을 흥분시키고 본정신을 상실하게 하여 사람에게 해를 주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로 인해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히는 자들이 너무 많고, 도망다니는 자들이 너무 많다. 술 먹고 교통사고를 내서 1년이면 수백 명이 죽어 나간다.
살인하는 자는 ‘실수’가 아니다.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

이니, ‘실수’로 안 보고 ‘살인 혐의’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본정신을 잃고 행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본정신을 잃지 말고 행해라.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술 • 담배를 하고 주께 회개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에 술과 담배를 하면서 자기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습니까?
술 먹고 문제 일으키고, 술 먹고 가족들 걱정시키고,
술 먹고 주정 부리고, 술 먹고 함부로 말하고,
술 먹고 자기 건강을 무너뜨리고,
담배를 피워 자기 건강을 상하게 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까지 해치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만든 것이 ‘술, 담배’입니다.
술, 담배는 ‘인간의 의무’도, ‘책임’도 아닙니다.
꼭 피해야 할 것입니다.
와인 한 잔이 몸에 좋다고 하지만,
와인 한 잔에도 ‘발암 물질’이 들어 있으니
술은 절대 피해야 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역시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술 한 잔 하고 깊은 대화를 하자고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배를 피워 댈 것입니다.

술, 담배 하는 것도 ‘죄’입니다.
만일 술, 담배를 해도 ‘죄’가 아니면,
술을 막 먹고 하나님 앞에서도 술주정을 하고, 담배를 마구 피울 것입니다.
술, 담배는 <자기 몸>에도 ‘죄’를 짓는 것이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주니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술, 담배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술, 담배를 하면 정상이 아닙니다.
자꾸 ‘회사 핑계, 일 핑계’ 를 대며 술, 담배를 하는데,
술, 담배는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가 절대 아니니,
자기가 상황이 들어지도록 기도하고 조절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했냐.”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단지 “했냐, 안 했냐.” 를 물어보십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죄’ 입니다.

11) 무지의 죄

모르면, ‘죄’ 다.
〈모르는 죄인〉을 가지고 역사를 펴지 않으신다.
〈아는 자, 의인〉을 가지고 역사를 펴 간다.
모르는 자는 몰라서 역사를 펼 수 없다.

5. 〈모르는 자〉는 알지 못하니, 행하지 못한다.
6. 자기를 위해 해 주건만, 〈모르는 자〉는 무지 속에 상극한다.
9. 〈자기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라. 〈모르는 것〉도 ‘죄’ 다.
10. 모르면, 자기편과도 싸운다.

〈모르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막고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
‘시대 죄인’ 이고, 그들이 ‘부끄럽고 무지한 짓’ 을 한 것이다.
무지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
메시아가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가 2000년 동안 각종 전쟁과 미움과 싸움이
되었다.

〈무지의 죄〉가 크고 큰 죄니라. 배우면, 알고 죄를 안 짓게 되나니
‘배우는 것’ 이 얼마나 크고도 큰 보람인지를 알아라.

12) 시대 마다 죄가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내용 따라, 환경 따라, 때를 따라 그때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해당되는 때는 그 법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지나고 나면, 행치 않아도 죄가 안 됩니다.

가령 어릴 때 필요한 이야기는 그때 생명같이 행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장해서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장한 때에 해당되는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때에 따라 필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안 하면 죄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제사 드리는 것을 일절 하지 말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메시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성장했을 때와 어릴 때가 다르듯 어떤 것은 시대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처지냐, 어떤 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 초등학교 교과서는 초등학교 때 필요하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고등학교 때 필요하고

대학교 교재는 대학교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구약말씀은 구약인들에게 필요하고

신약말씀은 신약인들에게 필요하고 성약말씀은 성약인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본’은 어느 때를 망라해서 항상 필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계명같이 기본 말씀은 어느 시대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은 어느 시대나 절대적이고, 율례, 제도, 풍습은 시대 따라 다릅니다.

13) 죄의 형벌

79. <죄의 형벌>은 ‘하나님이 때려서 주는 것’이 아니다.

<자기 행위>로 인해 ‘자기가 그 환경에서 스스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80. 가령 <청소를 안 한 것>이 ‘죄’라 하자.

청소 안 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자.

그래도 청소하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벌레한테 물리고, 청소하지 않아서 더러운 것은 ‘본인이 안 해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냄새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럽게 하신 것도 아니다.

모든 죄의 형벌도 그러하다.

자기 행위로 인해 자기가 그 환경에서 스스로 형벌을 받게 된다.

81. 모두 장마에 대비하라 했다 하자. 그런데 안 했다.

장마가 지니 집에 비가 새고, 물건이 떠내려갔다.

안 한 것을 회개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그런데도 고통이 왔다. 왜일까?

하나님이 때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준 것도 아니다.

집을 고치지 않으니 집에 물이 새서 추운 것이고, 각종 물건들이 떠내려가서 먹을 것이 없고 잠을 못 자는 것이다.

그것이 곧 ‘자기가 안 한 것으로 인한 고통’ 이다.

<본인>이 안 해서 ‘형벌과 고통’ 을 받는다. <하나님>이 고통을 준 것이 아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서 집을 고치고, 물에 떠내려가서 없어진 것들을 다시 사 와라.

옆에서 형제들이 돕고 함께해 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만, 결국 ‘본인’도 같이 해야 된다.

6. ‘회개’와 심판

1)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신다

- ◆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시고
<회개한 자들>은 ‘용서’ 하시며, 각자 행위대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다 행하십니다.
각 개인도 연말에는 정산하고 청소하고 해를 넘기듯,
하나님도 꼭 정산하고 청산하고 해를 넘기십니다.
- ◆ “특히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는 이단’과 ‘가인적 종교들’은
<소멸하는 심판>을 이미 했고, 앞으로도 계속한다.” 하셨습니다.

2) 심판은 하나님의 청소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 이든지 ‘안 믿는 자’ 이든지,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면 - 더 돕고 함께 하시며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시고,
각종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청소’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려고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십니다.

- ◇ 심판은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격입니다.
사람들도 모두 청소하는 것이 곧 쓰레기 심판 아닙니까.
육도 영도 깨끗이 회개하고 자기가 청소하듯이 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 ◇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두 전심으로 살아라. 육신의 행위대로 영이 사망으로도 가고, 천국으로도 간다.
이는 절대적인 전능자 하나님의 법이라, 피할 수가 없다.
믿고 행해서, 생명권에 살아라.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소돔 땅의 롯같이 벗어나리라.

섭리사는 약속대로 해 주니, 감사하고 지켜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3)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때가 되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18.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며 때를 맞춰 행하셨다.

그러므로 때가 오래 가니, 의인들이 고통을 해결 안 해 주냐고 하였다.

하나님은 모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기간이니, 그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참으라고 하셨다.

19.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구원받으려 의인들로 힘써 행해야 된다.

예수님을 불신한 자들은 예수님이 잘해 줘도 막무가내들이었습니다.

충성자들은 왜 하나님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이토록 괴롭혀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놓아두시냐고 불만 불평들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때가 되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청소와 같아서 정한 날에 꼭 하십니다.

청소할 기회를 주셔야 공의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 청소할 기회를 주십니다.

만일 회개의 기회, 깨끗게 할 기회를 줘도 안 하면

심판으로 깨끗이 청소하듯이 깨끗이 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악’에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사람의 악과 죄의 행실’에는 돌이키는 기간을 주신다.

그 기간에 또다시 악을 행하면, 정한 날에 심판을 받고 끝난다.

4)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정한 심판도 돌이키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절대적으로 행하신 일’을 돌이키기도 하셨다.

하나님은 <니느웨성>을 절대로 심판하려고 정하셨다가,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 하니,
‘정한 심판’을 돌이키시고 멸하지 않으셨다.

7. ‘회개’와 용서

1)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를 지은 자가 진실로 회개하면, 정말 100% 용서해 준다.” 하셨습니다.
100% 용서해 주지 않으면 100%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용서했으니 서로 형제들을 용서할
것이 있으면 100% 용서해 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죄와 십리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이니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꿈이나 만물로 계시해 보이신
다.

◆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의 개가 주인의 말을 안 들어서 화난다고 묶어 놓으면,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쫓아가지 못하여 제 할 일을 못 한다.
또 짐승들이 와서 싸우게 되면, 묶어 있으니 제대로 못 움직여 물려 죽게 된
다.”

◆ 그리고 <하나님 앞의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나 여호와 앞에 잘못하여 내가 화가 난다고
그 죄값으로 ‘죄의 사슬’에 묶어 놓으면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패하게 되고, <생활과의 싸움>에서도 패하게 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패하게 된다.
고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여 <죄>에서 풀어 놓고,
<사탄>과도 <겨루는 자>와도
<생활>과도 <자기>와도 싸워 이기게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회개하는 자들’을 그냥 두기보다,
용서해 줘야 속이 시원하시고 분노의 마음도 확 전환되어 기쁘시다.
그 대신 용서를 받았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며 행해야 된

다.

2) 용서의 종류

하나님께 죄에 대하여 간구하니, 일단 용서해 주면 끝나는 것이 있고,
‘용서해 주니 회개하여 깨끗이 하라’ 고 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행여 잘못이 있어도 용서해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사랑하는 자의 잘못과 사랑하지 않는 자의 잘못은 그 용서가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3)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혹시 형제가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어라. 그냥 말고, 주의를 주고. 다시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모든 교회에 이야기해라. ‘이래서 애가 이렇게 됐다.’ 고 얘기해라.

그러나 용서해 줘라. 용서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용서해 주어라. 용서해 줬는데 안 되면 전체에게 피해가 되니까 안 된다.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하셨습니다.

형제가 행여 죄짓는 말을 했어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형제를 씹고 욕하면 자기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용서해줘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나 예수도 그리 용서한다.” 하셨습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고 자기 죄만 용서해달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안 됩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이 자기 죄를 수십 번씩 용서해줬는데, 자기는 상대가 한 번 잘못된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도 그를 용서해주지 않습니

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듯,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듯 피차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한다.” 했습니다. (엡 4:32, 골 3:13)

4)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신앙도 ‘절대 화평’ 으로 행하면 <새 시대>와 같이 그러합니다.

섭리사 안에서도 형제들 모순이나 파 보려 하지 말고 자기나 충성하고 해요.

100% 확인도 안 하고, 사실도 아닌데 바리새인같이 서로 헐뜯고 분쟁하면 안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합니다.

8. ‘회개’ 조건과 탕감

1) 죄의 대가(代價)와 회개 조건, 근신

20. 육신이 죄를 지으면 육신이 죄의 대가를 받고, 마음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죄의 대가를 받는다.
21. 죄를 짓고서 또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3개월, 7개월, 1년씩 죄를 안 짓는 조건을 세우고 와서 회개해야 성자께서 “너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쳤구나. 그만큼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며 죄와 멀리 떨어져 살았구나. 믿고 용서해 준다.” 하신다.
22. 행실로 죄를 안 짓는 의로운 조건을 세우고 깨끗함을 보여 줘야 성자께서 “너는 정말 죄를 안 지으려 하는구나. 믿고 인정한다. 고로 용서해 준다.” 하신다.
23. 죄를 밥 먹듯이 가볍게 여기고 죄짓는 것을 생활화하면, 조건이 붙어서 근신 기간을 1년, 3년, 7년씩 준다. 근신 기간 중에 죄를 지으면, 또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죄로 인해 가중된 형벌을 받고 살게 된다.
24. 죄를 짓고 회개하는 조건을 세워야 용서한다. 용서받았어도 근신 기간을 1년, 2년, 3년, 4년, 혹은 7년씩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만큼 죄와 떨어져 죄의 주관권을 벗어나게 된다.

2) 조건을 세우고 회개하라

35. 모든 죄도 끊으려고 몸부림치며 조건을 세우고 회개해야 성자께서 그 조건을 보고 믿고 인정하고 용서해 주신다.
36. 말로 회개했을 때 그냥 용서해 주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쉽게 죄를 짓게 된다. 용서받아 놓고서 또 거듭 죄를 지으니, 자기도 민망하여 그때는 회개도 못 하고 포기한다. 고로 어느 기간 동안 죄를 안 짓는 조건을 세우고 회개하라는 것이다.
38. 죄를 지으면 그냥 용서해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아라. 죄를 안 짓기 위해 몸부림친 ‘근거’가 있어야 성자도 행한 대로 용서해 주신다. 본인이 죄를 안 짓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죄를 용서받았어도 또 쉽게 거듭 죄를 짓게 된다.

3) 행위로 용서를 받아야 끝난다

- ◆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 행하십니다.
- ◆ 가령, 사고가 나서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합시다.
〈상처 난 얼굴〉은 ‘온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상처가 온전히 다 나았으면, 그때는 ‘온전한 자’에 들어갑니다.
- ◆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합시다.
그 나무는 ‘온전한 나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20년 동안 커서 그 자리에 가지가 다 나서 채워지면
그때는 ‘온전한 나무’에 들어갑니다.
- ◆ 고로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옳은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건을 세우고 올라오면, ‘온전한 자’가 됩니다.

이성 죄를 지은 자도 말로만 용서받는다고 해서 죄가 끝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 용서를 받아야 끝난다.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안 해야 끝나고,
반드시 죄의 탕감 조건과 형벌 조건을 세워야 끝난다.

4) ‘탕감 기간’은 치료 기간과 같다

왜 〈회개〉하면 ‘탕감’을 받게 하시냐고요?
이는 마치 ‘치료 기간’과 같습니다.
사고가 나서 다쳤으면 바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지요?
반드시 ‘치료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일정 기간 ‘탕감 기간’을 거치게 하시고,
그 후에 ‘본래 상태’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5) 직급자의 회개와 복직

34.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등 직급이 있는데도 술을 먹는 자들은 이미 ‘그 직급’에서 해임되었다. 회개하고 다시 복직해라.
35. 각종 불법을 행했으면 반드시 <회개>로 해결하여 ‘복직’해야만, 다시 깨끗하게 되어 ‘직급’이 주어진다.
36. 교회에서 ‘본이 안 되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그 권위와 직위가 떨어진다.
- 하나님 앞에는 ‘직위’가 흐려져 있고, 이미 사라진 자들도 있다.

6) 가중된 조건

모든 일들을 허술히 해서는 안됩니다. 허술하게 하면 힘이 더 많이 듭니다. 그것을 보고 가중된 조건이라고 합니다.

첫번째에 10개 갖고 안된 일은 두 번째 할 때는 20개 갖고 해야됩니다. 그렇게 가중된 조건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5개 갖고 할 것을 못하면 두번째는 10개 갖고 덤벼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왔어도 겨우 그 급에서 사명을 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그 선을 잃고 평신도가 되어 살지 않느냐.

영계에 가 보면, 그 영이 사는 지역이 바뀌어 있다.

과거에 사랑 죄를 지은 자는 가중된 사랑의 조건을 세워야만 겨우 사랑 구원에 들어간다.

사람에게는 다시 한 번 기회가 오는데 구약에서는 4000년만에 왔습니다.

‘내가 잘 믿을 것인데 육적으로 살다가 죽었다’ 할 때 다시 기회가 오는데 그것이 4000년 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기회가 옵니다. 자기 소원을 근본으로 풀 기회가 4000년만에 온 것입니다. 깨끗한 터전을 다시 주는데 4000년이 걸렸습니다.

신약에서는 못했으면 그 다음 기회가 2000년만에 옵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2000년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다른 터전인 성약을 주십니다. 새로 해보라고 완전히 새 땅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놓치면 오래 걸립니다. 다시 해보라고 줄 때는 꼭 해야합니다. 그 때도 못하면 안 됩니다. 못하면 가중된 탕감을

받습니다. 무거운 탕감을 겪고 넘어갑니다. 그 때는 3배, 4배를 더 뛰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지 모릅니다.

9. ‘옛것을 장사지내라’ ‘청산’ ‘깨끗해야 한다’

1) 옛것을 장사지내라

4. 잘못을 회개하고 행해야 가던 길을 연속 가게 된다.
5. 자기 모순, 옛것 버리기와 새것으로 만들기다.
6. 옛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는 새것을 만들지 못하며 휴거도 될 수 없다.
7. 가령, 자기 고향의 옛집을 헐고 없애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다 좋은 집을 짓지 못한다. 그와 같이 자기 마음속의 옛것을 그대로 두고는 새 역사를 받아들여 새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못 펴게 된다.
8. 말씀 듣고 먼저 자기의 옛 생각과 행실을 버려야 하나님도 성자도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신다.
9. 100% 옛것 버리고 100% 새것으로 만들기다.

옛것을 장사 지내라.

아직도 방에 ‘썩은 시체’를 놓고 사니, 썩은 냄새가 천 리, 만 리 풍기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와 같이 어서 옛것을 장사 지내라.

◆ <하나님의 새 역사>를 못 맞으면, ‘옛것’에서 끝납니다.

<옛 역사>를 장사 지내지 않으면,

‘새 역사에 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옛것, 옛 역사를 장사지내고 새 역사를 맞은 자>만

‘새 역사 혼인 잔치’를 합니다.

2) 청산하여라

<옛것>도, <자기 죄>도, <자기중심의 생각>도 모두 청산하여라.

<부활의 역사>가 왔으니 ‘부활의 새 삶’을 살아라.

그리함으로 육도 영도 꺼림 없이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아야 되느니라.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사탄에 속한 생각’ 이 되느니라.

<구시대의 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장사 지낸 자>만이

<새 시대 역사에 와서 사는 자>입니다.

<옛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장사 지낸 자>만이

<새 시대 부활의 역사에 와서 사는 자>입니다.

◆ <정리하는 것>과 <청산하는 것>은 그 삶이 다릅니다.

<청산하는 것>이란,

마치 아기가 태반에서 탯줄을 끊고 나오듯 하는 것입니다.

한 줄기 탯줄로 계속 매여 있으면, 세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탯줄을 완전히 끊어야 되듯,

<옛것>도, <자기 죄>도, <자기중심의 생각>도 완전히 청산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에 들어가 일체 될 수 있습니다.

“<옛것, 옛 삶>을 깨끗이 청산해라.

그러면 <옛것>에 매이지 않으니, <다음 단계, 다음 차원>으로 가게 되느니라.

매일 저마다 ‘삶 속에서 청산할 것’ 은 청산해야

<그 일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려 들어가게 되느니라.”

◆ <옛것>에 매이면, 눈앞의 ‘새것’ 을 보고도 가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합니다.

그때마다 ‘자기 할 일’ 을 행함으로 청산할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청산할 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쌓이고 밀려서 결국 못 합니다.

때가 오면, 모두 청산하고 떠나야 됩니다.

◆ 아직도 ‘옛것’ 을 하는 자가 있습니까?

혹은 ‘옛것’ 도 하고 ‘새것’ 도 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런 자는 ‘양쪽 집 살림’ 을 하는 자와 같습니다.

어서 부지런히 ‘자기 할 일’ 을 하며 옛것을 청산하고,

<삼위의 때>에 맞춰 <삼위의 뜻>을 따라 살기 바랍니다.

3) 깨끗해야 한다

<살>과 <때>는 눈으로 봐도 모르고 만져 봐도 모릅니다.
 몸에 ‘물’을 붓고 불려 보고 씻어 보면 압니다.
 그때부터 <때>는 <살>에 붙어 있지 못합니다.
 <살>은 절대 ‘때’ 같이 밀리지 않습니다. <살의 질>과 <때의 질>은 다릅니다.
 이와 같이 <의>와 <죄>도 그러합니다. 말씀이라는 ‘물’로 씻어 보면 압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의 물’로 씻어 보면,
 100% <죄>인지 <의>인지 <생활>인지 알게 됩니다. (아멘.)
 <죄>를 구분하지 못하면, ‘자기 생활’로 봅니다.
 고로 좋아서 계속 행하며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달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화목과 사랑’에 붙이 붙지 않습니다.
 <죄>는 씻어 내야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가까이 오십니다.
 청결하게 깨끗하게 흠이 없이 행해야 하나님의 눈에 뵈입니다.
 마음도 행실도 완전하게 갖추 놓아야 언제나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 신앙도 그러합니다.

계속 실천하지 않으면,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굳어 버립니다.
 그러다 ‘치명적인 고질병’에 걸립니다.
 이성, 동성, 의심, 오해, 자기 모순과 각종 죄를 회개하고 고치는 실천을 안 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결국 ‘사망’에 묻히게 되고,
 그대로 두다가는 ‘복직이 어려운 지경’까지 됩니다.
 하루는 이들의 ‘영의 상태’를 보고는

<그 육신>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과일이 커도, 썩으면 뭐가 아깝냐. <섭리사>만 보지 말고 <세상>을 보아라.
 엄청나고 엄청나다. <이 좋은 천국>에 아무나 들어오라고 하기가 정말 아깝다.
 <기준>이 돼야 한다. 그래야 <천국>을 줘도 아깝지 않다.” 하셨습니다.

*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깨끗하고 정결한 자〉에게 〈깨끗하고 온전한 황금성 천국〉을 줘야 아깝지 않다.”

〈좋은 자리〉는 ‘위치’가 좋아야 되지 않느냐.

〈최고 좋은 곳, 최고 좋은 위치〉는 〈최고로 사랑하는 자, 최고의 기준이 되는 자〉에게 줘야 준 자도 아깝지 않고 기쁜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늘 신부들은 오직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마음도 행실도 깨끗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맞습니다.

회개하고 청소하여 깨끗하게 함으로 신랑으로 오신 삼위와 예수님을 맞아야 됩니다.

10. ‘회개’와 월명동

1)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회개하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고, 마음을 비우고, 너의 주관을 버리고,
더러운 신을 벗듯 꺼리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나아가라.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 놓아야 다니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발을 벗으라.” 하시며
〈발 상징돌〉을 주셔서 자연성전 입구에 놓았습니다.

- 저마다 육의 행실의 죄를 두고 회개하여 깨끗이 해야 됩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 쓰레기와 배설물이 매일 나오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죄의 쓰레기들이 매일 나옵니다.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청소하듯이, 때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2) 처음 개발할 때 150년 썩은 흙과 쓰레기를 다 청소하여 거룩한 곳이 되었다

- 항상 생활하면서방도 집도 정원도 주위 환경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더러우면 더러운 세균과 벌레가 모여들듯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더러운 귀신과 마귀가 옵니다.

고로 저마다 자기를 흠도 없이 깨끗이 해야 됩니다.

- 월명동을 처음 개발할 때도

먼저 150년 동안 썩은 흙과 쓰레기를 다 거두어 청소했습니다.

그래야 샘을 파도 샘물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산과 논과 밭의 썩은 흙들을 수천 트럭 파내서 청소하고,

산과 지역을 깨끗이 하고 그 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므로 월명동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3) 야심작 백보좌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이룰 주인공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뤄야 하니, 호리라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심작> 쌓을 때도 다섯 번 무너지고 여섯 번째에 완전히 쌓았습니다.

그러니 <이성 죄>도 <자위행위>도 무너지면,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 <야심작을 청소하기 전>과 <청소하여 근본 문제를 해결한 후>를 보세요.
저마다 <옛것>과 <근본 문제>를 다 없애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그제야 깨끗하고 청결하게 된다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 <옛것>을 두고는 아무리 대청소를 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옛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새 시대 말씀>을 듣고 <구시대의 것>을 버리고,
<자기 근성>과 <옛것>을 자르고 회개하고 없애야 깨끗해집니다.

-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자기 육과 마음의 성전>에 임하여 같이 살아 주십니다.
-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어 살게 됩니다.
- 항상 <하나님의 깨끗한 육신>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권의 권세’를 뺏기지 않고 살게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은 피할 수 없이
<확실한 실체 비유>를 통해 ‘근본’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야심작 백보좌>를 보이시면서
이와 같이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섭리사 모두 <자기를 깨끗이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 깨끗이 하려면, <기도>를 깊이 해야 됩니다.
청소하듯이, 누구나 <자기 죄>를 깨끗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 <하나님의 보좌 야심작>을 깨끗이 하니 그렇게도 기쁘고 좋듯이,
<자신>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자신>도
그렇게도 속이 시원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아멘.

4) 야심작들

선생도 하나님께서 <야심작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야심작을 제자들과 함께 쌓고도 24년 만에야 그 뜻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바로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야심작을 깨끗하게 정리해 드리고 그동안 제대로 못 했다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야심작들>이 독수리 형상, ‘하나님 상징 작품’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끗이 해야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5) 분재 작품술과 뿌리술

성령님은 <운동장에 있는 분재 작품술 하나>를 깨우쳐 주시면서,
그와 같이 <다른 희귀종 소나무와 뿌리 소나무들>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이와 같이 귀하니, 나무를 덮고 있는 썩은 나뭇잎과 흙을 파내서
묻혀 있던 작품을 깨끗이 단장해 주듯이, 이제 자신의 생각과 행실을 점검하여
고칠 것을 고치고, 자를 것을 자르고, 회개도 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6) 뿌리술

나무 밑에 썩은 것들로 인해서 <나무의 뿌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작품 나무’라는 것을 알고
썩은 것들을 없애 깨끗이 하고 뿌리를 파내서 만들었더니,
10배, 100배 가치 있게 됐습니다.

- <나무>가 이러하다고 알게 하심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도 그러하니
<자기>를 점검하여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드러낼 것은 나무뿌리
같이 드러내면서 자기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면 <작품 나무>같이 전보다 더 가
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 이와 같이 비유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나무를 80년, 100년, 120년씩 길러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과 성령님의 심정>을 알고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정말 귀한 자신을 더욱 귀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7) 성령폭포와 작품왕 소나무

- <성령폭포>를 깨끗하게 청소하니, 성령님은 그 대가로 생각지도 않았던 ‘소나무 뿌리 작품’을 주셨습니다. 나무의 이름은 <작품왕 소나무>입니다.

전에 ‘별봉정 SS 소나무 옆 양달’에 수박을 심었었는데,

그 수박밭이었던 곳에 이 나무가 있습니다.

뿌리가 완전하게 6개로 뻗어 있는데, 6m 뿌리가 2개, 3m 뿌리가 4개 뻗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깜짝 놀랍니다.

- 성령님께 묻기를 <하나님 보좌>를 깨끗이 했을 때는 ‘야심작 돌’을 보여 주셨는데,

성령님은 <성령폭포>를 깨끗이 청소한 대가로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고 했습니다.

이에 성령님은 선생님을 ‘이 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나무의 뿌리를 파내게 하셨습니다.

- 이같이 귀한 작품을 주신 것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은 정말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구나.

이를 절대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대로 목숨 걸고 행해야겠다.’ 깨달았습니다.

8) 낙타바위

월명동 수낙타 95% 개발했는데, 성령님이 감동 줘서 마지막 5% 더하니 멋있는, 기가 막힌 작품이 나왔다. 아주 깔끔하고 멋있는 작품이 나왔다.

전에 계단 있던 곳, 오동나무 서 있었던 곳이다.

흙으로 덮인 곳 파냈더니 수낙타가 완성됐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100% 개발하고, 고치고, 회개도 해야 한다.

11. ‘회개’ 사연과 실천

1) 장마철 교회에서 뜨겁게 회개기도

선생도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축구공만 한 불이 강대상 쪽에서 왔습니다.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장마철이었는데 교회를 가려면 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 냇가를 건너다가 물이 불어나 죽음을 면하고 비를 흠뻑 맞고 교회에 와서 혼자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강대상 위쪽에서 불덩어리가 오면서 타 죽을 정도로 내 몸이 뜨거웠습니다.

순간 수십 개 나라의 방언이 나오고 통역이 나와서 내가 영으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실 때 뜨겁습니다. 불은 곧 신의 강림입니다.

그날 새벽에 뜨겁게 회개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은혜의 생활을 하며 산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2) 축구 사형선고 회개

선생도 다른 길로 가려다가 축구를 하던 중에 다쳐서 매를 맞고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습니다. 때는 섭리역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후에 아나운서가 되어서 온 민족을 전도하겠다고 하며 아나운서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산 중학교에서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골키퍼를 했습니다. 상대방에서 볼을 찼는데 내가 몸으로 볼을 잡아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볼을 찬 자가 내가 볼을 잡은 것을 알고도 다시 한 번 더 발을 휘둘러 내 머리를 찼습니다. 그때 그는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구두발로 힘껏 머리를 찼으니 내 머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때 내 육은 쪽 뺨었고, 영이 놀라서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이 20~30m 공중으로 떠서 내 육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육신을 슬프게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거봐. 예수님 말씀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하며 안타깝게 쳐다보았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고 하며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진탕이라고 하며 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뇌 수술을 하다가 죽어도 병원에서는 책임을 못 진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같이 되었는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배신하고 딴 길을 가니 이렇게 되었다. 배신은 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하셨습니다.

선생의 생각은 아나운서를 해서 온 민족을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딴 길을 가니 주님이 나를 지켜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병원에서 죽기 전 마지막으로 주님께 매달리며 회개했습니다. 내 육은 거의 죽은 채로 누워 있었고 내 정신만 겨우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회개하니 주님은 수술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가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이 내게 뜻하신 섭리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 482년 만에 기독교와 천주교의 하나됨

한번은 선생이 유럽에 있을 때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482년 동안 하나가 안 돼서 싸워 왔는데, 그때 선생이 이탈리아의 한 성당에 가서 신부들과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풀어 주었다.

그리고 1999년 10월 31일, 천주교와 개신교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482년 만에 서로 화해하는 평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자는 나에게 “너는 기독교인으로서 개신 기독교의 대표가 되어 천주교를 한 사람같이 보고, 그동안 오해하고 싸웠던 죄들을 내가 한 것같이 회개하여라.” 하여 석 달 동안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천주교의 실체를 보며 회개하고 성자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그리고 이탈리아 한 성당에서 신부들과 구원에 대한 대화를 하고 불과 40일 만에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4) 섭리사, 세상,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회개의 조건을 세움

선생은 오직 섭리사의 죄, 세상의 죄, 온 인류의 죄를
100% 지고 회개하며 조건을 세우는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시대의 죄와 만민의 죄를 대신하는 목적>대로,
섭리사와 시대가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 6월 10일부터 온몸이 쭈시고 열이 39도 이상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고,
힘이 쭉 빠지고 너무 아파서 시름거리며 보냈습니다.
그래도 매일 밀려오는 서류들을 안 보고 답장을 안 해 주면,
전체가 일을 못 하니 최대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 힘이 빠지고 너무 아파서 결국 식음을 폐하고 누워서 보냈
습니다.

그동안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최대한 일을 했더니,
이것이 쌓여서 영양에 문제가 생겼다 생각하고,
“나오면, 앞으로 하루 한 끼는 더 먹어야지.” 했습니다.

◆ 아프니까 ‘육성’ 이 싹 사라졌고, 아픈 것이 낫기만을 바라며 기도했습니
다.

그때 ‘죄의 값은 사망이다(롬 6:23).’ 라는 성구가 떠올랐고,
나와 섭리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특히 ‘이성 죄를 짓는 자들’ 을 놓고 회개했습니다.
<이성 죄>는 ‘휴거 신부가 되는 데 독약’ 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선생이 대신 회개했습니다.

12. ‘회개’와 성경 인물

1) 회개하지 않은 자는 모두 심판하셨다

회개하면, 심판을 안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회개 안 한 곳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육체가 되어 산 자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한 사람들, 다윗을 괴롭힌 사울 왕,
에스더 때 음모하고 억울하게 한 하만, 안 하겠다 해 놓고 변장하고 행한 요시
야 왕,
베드로에게 거짓말하고 땅값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
회개하지 않은 자는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2) 아담 하와, 노아,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성

◇ <아담과 하와 때>, 이들이 ‘이성의 범죄’를 하니 하나님은 형벌을 주셨습니다.

◇ 노아 때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혼인 문란함으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미리 ‘방주’를 만들게 하
여, 노아의 여덟 식구만 심판을 면했습니다.

◇ 소돔과 고모라 성도 ‘성적(性的)인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
다.

최악이 하늘 끝까지 닿아 관영되니, 의로운 롯과 그의 가족들만 살리시고 모든
성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뒤돌아본 롯의 아내
는 죽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 여러분 니느웨성은 최악이 관영되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으나,
요나 선지자를 보냈을 때 온 성이 모두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회개해야 육도 영도 살게 됩니다.

◇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시대마다 ‘죄’에 대해 말씀하시
며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3) 노아 홍수심판

-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악의 편>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악의 편>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어떤 이유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전능자 나 여호와와는 악을 반드시 정녕코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

창조 이후부터, 정한 때만 되면 깨끗하게 하는 심판을 해 오지 않았느냐.”

- 의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고 막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꼭 해결해야 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때가 되어 다 심판하셨는데 확인해 보지 않으니 심판한 것을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자들만 심판해 달라고 재촉하지 말고, 각자 너희 자신에게도 그들 같은 불의가 있으니, 이것을 먼저 깨끗이 해라.”

- 노아 시대 때 홍수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 <노아>는 ‘의인’ 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노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곳’에 살고 있으니,

그 심판을 피하려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 시대의 행위를 따라 행하시되,

<그 시대의 의인인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게 하여 심판의 날에 살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니, 하나님은 그때 홍수심판을 하셨습니다.

‘양심 심판’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살았지만, 물 위에서 다섯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물이 빠지고 배가 땅에 닿은 후에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땅이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기에 그로 인해 - 갖은 고생을 하면서 회복해 나갔습니다.

- 이와 같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는,

의인일지라도 ‘심판 받는 영향권’에 같이 있으니 그에 해당되는 나름대로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결국 지나가고 회복됩니다.

의인을 향한 심판이 아니니 이것을 알고,
먼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자신부터 깨끗이 해야 됩니다.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재촉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깨끗이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는 ‘이 시대 의인들이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4)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을 종의 몸에서 구원해 준 모세를 원망하고 불만, 불평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모세를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끊어 버리니 그들은 이상 세계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 시대 하나님의 최고 축복인 이상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니 육적인 축복도, 신앙의 축복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원망한 자들, 악평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악한 자와 악평을 다 이기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가나안 복지, 천 년 역사에 들어와 살게 해 주십니다.

5)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하며 범죄하였구나. 회개하라! 만일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안하면 침대에다 때려 눕힐 것이다. 그리고 자녀를 사망으로 전부다 쳐 죽일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잘 하면 새벽별을 주리라. 구세주(救世主)를 다시금 섬기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8~29)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되지요! 이세벨을 용납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로 인해서 행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센타 별로 따지면 많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핍박하고 욕하고 돌아다녔지요?! 그런데 그를 용납해서 오히려 성도들로 범죄케 만드는 입장.

그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자녀를 죽인다는 것

입니다. “죽인다!” 는 것은 육신을 죽인다기 보다 그들의 자녀들을 교회에 못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곧 젊은 청년들이 아닙니까? 젊은 청년들을 다 뺐긴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세벨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선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넣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상이나 불어 넣어주는 입장에 들어가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저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도 역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치 않으면 자녀들이 사망으로 죽을 것이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음을 받을 것이고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6) 사울 왕

◆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죄를 지으면 <자신>도 짓값을 받고 <후손>도 짓값을 받았습니다.

어떤 죄는 수백 년 동안 <그 민족>이 짓값을 받았고,

<개인>도 수십 년씩 짓값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도 자기중심으로 행하며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행한 대로 짓값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무너졌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 주권권 안에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 <죄를 지은 자>가 ‘회개’ 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 그 <영>이 반드시!!

악영계, 음부, 무저갱, 지옥으로 갑니다.

7) 요나 선지자와 니느웨 성의 회개

◆ 니느웨 성에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 외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 모두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다 살았습니다.

◆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고 맞으면 그를 통해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 후손들도 계속 선조들로 인해 믿게 되니 축복해 주셨지만, 그러지 않은 자들은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심판을 면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이 심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제비를 뽑게 하여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요나는 3일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서 갇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시키고 심판을 면하게 했습니다.

8) 에스더와 모르드개

에스더 때입니다. 그 당시 열방을 다스리던 <아하수어로 왕>에게는 사랑하여 택한 ‘왕비,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왕의 대신이었던 <하만>은 에스더의 민족이었던 유대 민족을 학살하려고 음모했습니다.

이에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개>를 모해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했던 처형대에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됩니다.

에스더의 기도와 간구로, 악한 자 <하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하고, 섭리사도 그러하니, 각자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 온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 8:4~9>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를 두고 힐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죄가 있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보던 자들이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죄 없는 자가 치라.’ 하는데, 죄가 있는 자가 돌로 칩니다. 그도 죄인이 됩니다. 율법자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무서운 자들입니다.

9) 예수님의 기도는 70% 감사의 기도, 10% 달라는 기도, 20% 회개하라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꼭 감사에 대한 면으로 보십시오.

왜 감사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중심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맨날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의 제단이지, 죄를 지었다고 죄의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속죄의 제물을 드렸겠습니까. 감사했습니다. 전부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70%를 감사의 기도로 하라 했습니다.

나머지 중에 달라는 것은 10%를 하고, 20%는 회개하라 했습니다.

10) 예수님과 요나의 표적

◆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 달라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기 길로 가다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회개하고 돌이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던 니느웨 사람들을 전도하고 회개시켰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의 그 시대가 메시아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대속하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시대의 불신으로 인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는데,
그러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곧 ‘예수님 자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요나의 표적>은 곧 ‘행한 대로 보여 주는 표적’ 을 말합니다.

11) 예수님과 에스겔

25. 하나님과 성자께 자기 죄를 고하면, 어느 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네가 대신 형벌을 감당하여라. 그러면 죄가 용서된다.” 할 때가 있다. 짓값으로 인한 형벌은 평생 가기도 하니, 모두 천국에 가려면 죄를 안 짓도록 생명권에서 살아야 된다.
26.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죽음’ 으로 대신했다.
27. 에스겔 선지자도 백성들의 죄와 시대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자기가 감옥에 가서 죄의 대가를 대신 받았다.

12) 베드로

20. 사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며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니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이다.
21. 신부라면, ‘사탄과 같은 마음’ 을 가지고 행하지 말아라.
신부라면, ‘신랑의 마음’ 을 가장 잘 알아주어라.
22.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이 평생 한이 되어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며 외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듯이, 신부인 너희들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행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자께 못 한 것의 한’ 을 풀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는 길을 가자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했을 때,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그 죄를 회심하고 회개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고통의 길을 가면서까지 그렇게도 회개했다.

13)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셨고 제대로 보고 알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깨닫고 주님의 몸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았을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베드로 보다 나은 사람이었고, 메시아 다음으로 크나큰 혜택을 받을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반대하고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예수님 제자를 때려죽이고 그랬습니다. 열심을 갖고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하면 이해나 하지만 성한 사람이 미치면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그 사람도 미친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바울은 유대종교의 곤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때 길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눈이 멀게 해버렸습니다. 죽어서 영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네가 반대하는 예수다. 어쩔래?” “왜?” 눈이 멀었기에 당황하고 그랬는데 “네가 낫고자 하거든 누구에게 가라.” 하여서 갔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었기에 거기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회개시키고 받아 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사도바울이 뒤집어졌고, 눈을 뜨게되니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뇌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데려다 반은 죽이다시피 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6바퀴씩 돌며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13. ‘회개’와 성경

(욥 42: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시 7:12)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겔 18:30)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최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마 3: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 3: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 3:11)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 4: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 11:20)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마 11:21)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마 12:41)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마 18:15~20)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막 1:4)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막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막 6:12)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눅 3:3) 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눅 3: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눅 5: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눅 10:13)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눅 11:3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눅 13:3)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눅 13:4~5)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눅 15: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 15:1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눅 16:30)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눅 17: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눅 17:4)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눅 24: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행 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행 3: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행 5:31)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행 8:22)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행 11:1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행 13:24)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행 17: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행 19:4)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행 26:20)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롬 2: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롬 2:5)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고후 7:9)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후 7: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후 12:21)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딤후 2:25)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히 6: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히 6: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 12:17)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벧후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계 2: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 2: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계 2:22)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계 3:1~6)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광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계 3: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 9:20)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계 9:21)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 16:9)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계 16:11)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눈 먼 바리새인들아, 먼저 <속>부터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속>은 ‘마음과 정신과 생각들’입니다.

-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도바울>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무지로 지은 죄>는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자백해야 근본적으로 깨끗해집니다.

- 이같이 하여 깨끗해지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한다고 하시며,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깨끗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끝까지 따라가게 된다는 말’입니다.